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분석

이현숙, 배상윤*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Academic Burnout, Anxiety and Psychosocial Stress on Hopelessness among Some Health College Stud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Hyun-Suk Lee, Sang-Yun Bae*
Professor,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요 약 본 논문은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무망감에 대한 융합적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보건계열 대학생 214명을 J지역 소재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이고,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무망감은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을 수행한 결과, 학업소진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망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저하시키기 위한 교육상담 및 지도개입에 활용이 기대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과 관련된 추가적인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무망감, 보건계열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scertain convergent influence on hopelessness and its association with academic burnout, anxiety, psychosocial stress and hopelessness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4 health college students in J region, which were randomly selected. The survey period was from October 1, 2018 to October 31, 2018,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Hopeless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burnout, anxiety and psychosocial str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academic burnout, the higher anxiety and the higher psychosocial stress tend to increase hopelessness. In conclusion, in order to lower the hopelessn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efforts to reduce academic burnout, anxiety and psychosocial stress are need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expected to be used for educational counseling and guidance intervention to reduce the hopelessn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various additional factors related to the hopelessn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Academic burnout, Anxiety, Psychosocial stress, Hopelessness, Health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Sang-Yun Bae(sangyb@jvision.ac.kr)

Received August 20,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4,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보건계열 대학생은 성인에 접어들고 있는 예비사회인으로 전공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자발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해나가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자율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1].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전공교과, 교양교과, 외국어, 직업인성, 창업 및 사회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 의료분야의 발전을 수용하는 전문지식의 확대가 심화되고 있다[1]. 보건계열 대학생은 보건의료 분야의 취업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및 취업 등의 시대적 여건이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타 전공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학비 및 개인용돈 등의 경제적 문제의 경감을 위한 임시고용과 학업을 병행하는 생활부담이 유발하는 정서 및 심리적인 압박에 노출되기도 한다[2].

보건계열 대학생에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질 및 다양성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발전, 면허 및 자격 취득의 필요성 확대, 외국어 학습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다[3,4]. 또한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 병원직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 등의 과도한 학업압박에 대한 개인적인 극복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5]. 이와 같이 보건계열 대학생은 과중한 학업 및 대학생활이 주는 여러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처해 있지만,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교육환경의 지원 및 사회적 노력은 미비한 실정으로 보인다[5]. 보건계열 대학생은 개인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발현될 수 있고 이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성취에 대한 무가치감 및 처해진 상황의 개선의지를 약화시키는 무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소진감이 야기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무능감과 위협적 상황에 대한 민감한 안전작동이 발휘되는 불안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6,7]. 보건계열 대학생의 과도한 학업에 대한 소진감 및 심리적인 불안감은 학업에 대한 냉담, 탈진 및 무능감과 불명확한 위협대상에 대한 적절한 안전작동의 부진이 악화시키는 불안감으로 발현되어 심리 및 정신적 방어기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5,7,8,9]. 이와 같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감, 불안감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서적인 부정적 문제를 유도하여 의지약화, 무력감 및 무가치감, 현실부적응 및 사회적 변화에 대

한 부정,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부족 등으로 특징되는 무망감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과 관련된 여러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존연구에서, 무망감은 무력감 및 무가치감 등의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과 상호연관성이 제시되었으며[8,10,11], 대학생에게서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학업소진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좌절감과 실패에 대한 낮은 대처능력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연계하여, 비위협적 상황에서 정서적 불편감으로 나타나는 불안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6,7,12], 대학생은 위협적 상황과 불명확한 대상에 부적합한 대응의 상황에서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에 현출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6,8]. 청소년에게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무망감에 연관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13], 대학생에서 무망감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중대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14-16]. 기존조사에서는 무망감과 연관성을 보이는 각각의 요인과 무망감에 대한 제한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이 갖는 상호간의 연계성 및 융합적인 영향을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기존연구에서 무망감과 연관성이 조사된 요인들 간의 연계성에 의한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제시하고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의 상호영향과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융합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요인들 간 및 무망감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무망감을 낮추고자 하는 대학생생활상담, 학업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등의 다양한 교육적 중재 및 개입 노력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에 이용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대학의 보건계열 재학생으로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및 요인별 특성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 특성을 나타내었다. 성별은 남학생 21.0%, 여학생 79.0%, 연령은 21세미만 62.6%, 21세이상 37.4%, 종교유무는 있음 38.8%, 없음 61.2%, 가정생활만족도는 만족 96.3%, 불만족 3.7%, 학교성적은 좋음 20.5%, 보통 66.4%, 나쁨 13.1%, 친구와의 관계는 좋음 95.3%, 나쁨 4.7%,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 87.4%, 불만족 12.6%, 음주여부는 함 70.1%, 안함 29.9%, 흡연여부는 함 15.0%, 안함 85.0%, 규칙적식사여부는 함 24.3%, 안함 75.7%, 규칙적운동 시행여부는 함 20.1%, 안함 79.9%, 하루평균수면시간은 7시간미만 53.7%, 7-8시간 27.1%, 8시간이상 19.2%, 취미 및 여가 생활은 충분 51.9%, 불충분 48.1%,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71.5%, 나쁨 28.5%이었다.

3.2 무망감 및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 보듯이, 무망감은 학업소진의 탈진, 냉담 및 무능감과, 또한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 factors

Var.	1	2	3	4	5
1. Hopelessness(BHOP)	1				
Academic burnout(MBI-SS)					
2. Exhaustion	.250**	1			
3. Cynicism	.389**	.518**	1		
4. Inefficacy	.424**	.141*	.469**	1	
5. Anxiety(BAI)	.447**	.326**	.211**	.170*	1
6. Psychosocial stress(PWI-SF)	.538**	.470**	.477**	.481**	.436**

* : $p < .05$, ** : $p < .01$.

Table 2. Demographic, academic burnout, anxiety, psychosocial stress and hopelessness factor of subjects (n=214)

Demographic factor	Classification	N(%)	Academic burnout	Anxiety	Psychosocial stress	Hopelessness
Gender	Male	45(21.0)	36.20±10.17¶	7.40±8.12	17.71±9.97	4.44±4.39
	Female	169(79.0)	42.10±10.07	10.18±8.89	22.85±9.31	5.31±4.84
Age(year)	<21	134(62.6)	41.21±10.15	10.39±9.01	22.54±9.27	5.77±4.79
	21≤	80(37.4)	40.28±10.72	8.26±8.29	20.48±10.21	4.05±4.52
Religion	Yes	83(38.8)	41.92±10.78	10.69±9.81	21.81±9.24	4.73±4.57
	No	131(61.2)	40.19±10.05	8.90±8.04	21.75±9.96	5.37±4.86
Family life satisfaction	Satisfied	206(96.3)	40.75±10.42	9.29±8.62	21.57±9.67	5.00±4.65
	Dissatisfied	8(3.7)	43.63±8.25	17.50±10.06	26.88±8.44	8.38±6.48
School record	Good	44(20.5)	34.59±10.87	9.34±9.43	18.36±8.76	3.32±3.90
	Medium	142(66.4)	41.96±9.55	9.32±8.56	22.41±9.82	5.25±4.71
	Bad	28(13.1)	45.11±9.57	11.39±8.99	23.89±9.21	7.36±5.24
Relationship with the friend	Good	204(95.3)	40.70±10.34	9.42±8.66	21.54±9.77	4.94±4.61
	Bad	10(4.7)	44.20±10.59	13.20±10.90	26.40±5.50	8.90±6.24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87(87.4)	39.76±10.26	9.11±8.57	20.70±9.28	4.60±4.49
	Dissatisfied	27(12.6)	48.44±7.50	12.96±9.65	29.22±9.09	8.78±4.99
Drinking alcohol	Yes	150(70.1)	41.61±9.84	9.37±8.38	22.51±9.09	5.13±4.64
	No	64(29.9)	39.09±11.34	10.13±9.73	20.03±10.75	5.13±5.04
Cigarette smoking	Yes	32(15.0)	41.09±13.31	10.94±10.30	22.03±11.72	5.97±5.73
	No	182(85.0)	40.82±9.78	9.36±8.50	21.73±9.29	4.98±4.56
Regular Eating	Yes	52(24.3)	42.29±10.69	9.63±8.70	21.21±10.27	5.27±4.90
	No	162(75.7)	40.40±10.23	9.58±8.84	21.95±9.48	5.08±4.72
Regular exercise ¶	Yes	43(20.1)	39.81±11.01	9.53±9.69	21.49±9.66	5.05±4.60
	No	171(79.9)	41.12±10.19	9.61±8.58	21.84±9.69	5.15±4.80
Sleeping time(hr)	<7	115(53.7)	41.37±10.38	9.97±8.97	22.44±9.43	5.40±4.74
	7-8	58(27.1)	41.28±9.54	9.03±7.75	20.83±9.31	4.71±4.87
	8≤	41(19.2)	38.85±11.34	9.34±9.76	21.22±10.83	4.95±4.68
Hobbies & leisure life	Enough	111(51.9)	40.02±10.68	8.33±7.71	20.16±9.67	4.72±4.89
	Not enough	103(48.1)	41.77±9.95	10.95±9.67	23.50±9.39	5.56±4.5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53(71.5)	39.18±10.24	7.58±7.12	19.56±9.35	4.23±4.30
	Bad	61(28.5)	45.07±9.47	14.64±10.47	27.31±8.13	7.38±5.11

¶: mean±standard deviation, †: more than 3 times a week, and more than 30 minutes when doing once.

3.3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외생개념인 학업소진과 내생개념인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을 이론적 변수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론적 변수의 관측변수는, 학업소진은 MBI-SS의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불안은 BAI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PWI-SF로, 무망감은 BHOP로 하였다.

Table 4의 모델적합도를 볼 때, 절대적합지수에서 $\chi^2 = 6.056(df=4)$ 이며, $\chi^2/df=1.541$ 로 기준치 3이하이고, 유의확률은 기준치 .05이상인 $p=.195$ 이었고, 원소 간 평균차이(RMR)에서 .05이하인 .026이었으며, 기초부합치(GFI)에서 .9이상인 .991이었고, 조정부합치(AGFI)도 .9 이상인 .952이었으며,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는 .08이하인 .049로 나타났다. 충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에서 .9이상인 .985이었고, 비표준적합지수(TLI)에서 .9이상인 .980이었고, 비교부합지수(CFI)에서 .9이상인 .995로 나타나, 적합한 모델로 판단되었다.

Table 4. Model identification

Model Fit	
$\chi^2 = 6.056(df = 4), \chi^2/df = 1.541, p = .195$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26	
Absolut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 .991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52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49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985
	TLI(Tucker-Lewis Index) = .980
	CFI(Comparative Fit Index) = .995

Table 5 및 Fig. 1에서 표준경로계수로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효과를 보면, 학업소진은 불안에 대해 .353으로 정(+)의 직접효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607로 정(+)의 직접효과와 무망감에 대해 .43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효과를 표준경로계수로 보면, 불안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222로 정(+)의 직접효과와 무망감에 대해 .247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무망감에 대해 .202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비율(SMC)은, 학업소진이 불안을 12.5%, 학업소진 및 불안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Table 5.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nxiety(BAI)	Psychosocial Stress(PWI-SF)	Academic burnout(MBI-SS)	Z	SMC [¶]
Anxiety(BAI)		.353**	.241	.125
Psychosocial Stress(PWI-SF)	(.222**)	.607**	.300	.512
Hopelessness(BHOP)	.247**	.202*	.229	.534

* : $p < .05$, ** : $p < .01$, ||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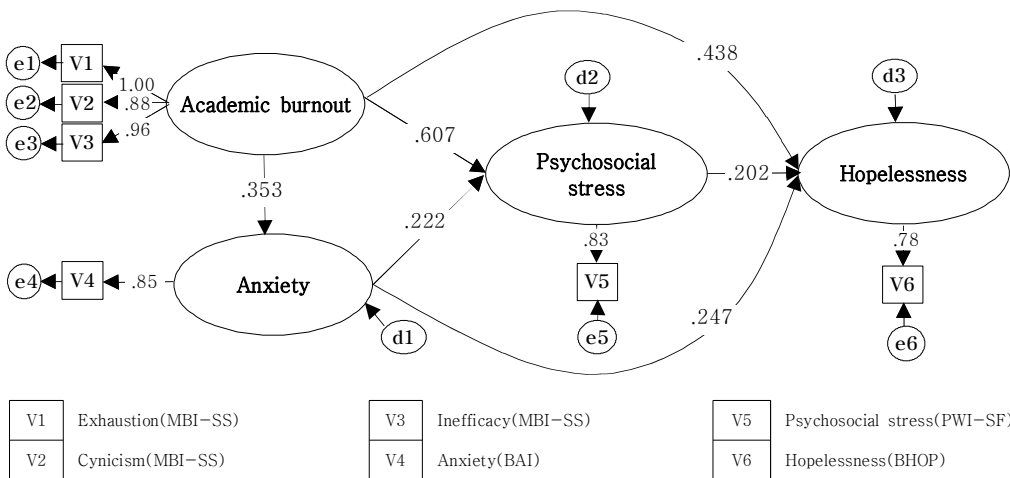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51.2%,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무망감을 53.4% 설명하였다. 무망감에 대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p < .05$, 그 외 모든 경로계수는 $p < .01$ 수준 내에서 유의하였다.

4. 고찰

본 조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시행되었다.

무망감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무망감은 학업소진의 탈진, 냉담 및 무능감,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기존조사에서 제시된 무망감과 학업소진의 상관관계[6,7,12]는 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급속한 발전, 병원직무의 다양성 확대 및 질의 상승, 병원종사자에 대한 직무능력 증대 요구의 증가 등의 보건의료분야 환경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구[27]가 발생시키는 학업 부담, 취업 및 진로 부담, 학업과중 및 영어학습 부담[3,4,8]이 야기하는 학업에 대한 무능감, 탈진 및 냉담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변화의지를 좌절시키는 무망감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존조사에서 무망감과 불안의 연관성[3,6]은 본 조사에서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안정작용 및 방어기제의 부재가 일으키는 불안은 정신적 불건강의 병인으로 작용하여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여 무망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기존조사에서 무망감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연계성[13-16]은 본 조사에서도 흡사하였다. 육체 및 정서적 압박의 위험수위, 대처능력 및 회복탄력성을 나타내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인 무망감과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부담에 의한 학업소진을 완화시키고, 불명확한 상황에 적절한 안정작용과 효과적인 대처기전을 작동시켜 불안감을 호전시키며, 위험수위에 도달되어 있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상태의 물꼬를 터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역경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교육적인 중재 및 개입 노력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외생잠재변수는 학업소진으로, 내생잠재변수는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이

로 하여,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모델적합성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표준경로계수에서는, 불안은 학업소진으로부터 .353으로 나타났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학업소진으로부터 .607, 불안으로부터 .222로 나타났으며, 무망감은 학업소진으로부터 .438, 불안으로부터 .247,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202로 나타났다. 학업소진이 증가할수록[6,7,12], 불안이 커질수록[3,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수록[13-16], 무망감이 증가한다는 기존 조사는 본 연구의 보건계열 대학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를 볼 때,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줄이기 위한 예방인자는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인자들이 무망감의 선행요인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업소진에서는 학업에 대한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 학업에 대한 무감각 및 냉소, 학업에 대한 자신감 및 성취감 결여를 낮출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및 학업상담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안에서는 불명확한 상황 및 대상에 대한 긴장과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개입 노력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서는 신체 및 정신적 압박이 위험수위를 넘지 않도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심리적 지지와 교육적 상담지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 소재 대학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면적 조사이므로 이 결과를 전체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응답편의(response bias)의 위험성에서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식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변인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개발시기가 상당한 정도로 경과되었으므로, 비록 조사에 사용된 자료의 정규성, 타당도 및 신뢰도가 적합한 수준이더라도 본 조사대상자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측정하였고, 학업부담,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낮추기 위한 접근에서 본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과 관련성이 있는 추가요인들[28,29]을 조사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J지역의 대학에서 임의로 추출된 보건계열 대학생 21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무망감은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학업소진, 불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무망감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학업소진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높아질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무망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무망감에 융합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인 학업소진, 불안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망감을 낮추는 교육상담 및 지도개입에 활용이 기대된다.

REFERENCES

- [1]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23-333. DOI : 10.14400/JDC.2016.14.12.323
- [2] S. H. Kim & S. Y. Bae.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childbirth perception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389-397. DOI : 10.14400/JDC.2016.14.9.389
- [3] H. J. Lee. (2017). Convergence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tc. by resilience clusters of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67-77. DOI : 10.15207/JKCS.2017.8.4.067
- [4] S. M. Hong & S. Y. Bae. (2019). Convergence factors related with communication competency of students in health majors in studying for TOE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257-266. DOI : 10.14400/JDC.2019.17.5.257
- [5] S. H. Kim & S. Y. Bae. (2015).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367-375. DOI : 10.14400/JDC.2015.13.10.367
- [6] H. S. Lee & S. Y. Bae. (2019). Analysis of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levels in a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19-227. DOI : 10.14400/JDC.2019.17.4.219
- [7] S. M. Hong, S. H. Kim & S. Y. Bae. (2017). An analysis on structure equation model of convergent influence on academic burnout of health major students in studying for TOE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29-342. DOI : 10.14400/JDC.2017.15.7.329
- [8]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69-278. DOI : 10.14400/JDC.2016.14.3.269
- [9] H. S. Lee & S. Y. Bae. (2017). Influence of stress, self factor and emotional factor on smartphone addict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326-336. DOI : 10.5392/JKCA.2017.17.05.326
- [10] S. H. Kim & S. Y. Bae.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childbirth perception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389-397. DOI : 10.14400/JDC.2016.14.9.389
- [11]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23-333. DOI : 10.14400/JDC.2016.14.12.323
- [12] B. J. Seo & W. H. Kim. (2017). Converged influence of the academic stress recognized by teenagers on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283-293. DOI : 10.15207/JKCS.2017.8.7.283
- [13] S. Y. Bae, H. S. Yoon & Y. C. Cho. (2015).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544-554. DOI : 10.5762/KAIS.2015.16.1.544
- [14] S. Y. Bae & Y. C. Cho. (2014).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85-3695. DOI : 10.5762/KAIS.2014.15.6.3685
- [15] M. K. Kim. (2019). A convergent study of variables

- influencing on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315-324.
DOI : 10.15207/JKCS.2019.10.2.315
- [16] M. Y. Chung & O. H. Cho. (2013). Psycho-soci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depending on a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5), 366-376.
DOI : 10.5392/JKCA.2013.13.05.366
- [17]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18]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DOI : 10.1177/0022022102033005003
- [19] H. Shin, A. Puig, J. Lee, J. H. Lee & S. M. Lee. (2011).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4), 633-639.
UCI : G901:A-0003483744
- [20] A. T. Beck, N. Epstein, G. Brown & R. A. Steer.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DOI : 10.1037/0022-006X.56.6.893
- [21] S. M. Kwon.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22] S. M. Kwon. (2003). *Modern abnormal psychology*. Seoul : Hakjisa.
UCI : G901:A-0006460234
- [23] D. Goldberg. (1978).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 NFER-Nelson.
- [24] S. J. Chang. (2000). *Standardization of collection and measurement of health statistics data*.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92-143.
- [25] A. T. Beck et a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865.
DOI : 10.1037/h0037562
- [26] M. S. Shin et al.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19.
UCI : G901:A-0000859095
- [27] S. Y. Bae & S. H. Kim. (2019).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loyalty and job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some administrative staff in medical instit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03 - 309.
DOI : 10.14400/JDC.2019.17.5.303
- [28] J. R. Lee & S. Y. Kim. (2018).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1-29.
DOI : 10.22156/CS4SMB.2018.8.6.021
- [29]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이 현 숙(Hyun-Suk Lee)

[정회원]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의무기록

· E-Mail : taihun02@naver.com

배 상 윤(Sang-Yun Bae)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교육

· E-Mail : sangyb@jvvision.ac.kr